

##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

12월 1호

## ◆ 주요 동향

1. 저장(浙江)자유무역구, 중국계 편익치적선 국제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 시행  
浙江自贸区首次实行中资非五星旗船沿海捎带业务
2. 2020년 1~11월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,840만TEU 달성  
前11月上海洋山港集装箱吞吐量逾1840万标箱 同比增0.48%
3.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, 유조선 시장 진작할 것으로 예상  
中国经济加快复苏将提振油轮市场
4. COSCO Shipping Ports, 샤먼에 자동화부두 R&D센터 설립  
中远海自动化码头研发中心试验基地在厦门揭牌
5. 중국 국경통상구 적체로 중~유럽 화물열차 제외한 수출화물 적재 일을 중단  
口岸站严重积压, 除中欧班列外国货物一律停装
6. 「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(해항편)」 발표  
《中国港口高质量发展报告2020 (海港篇)》发布
7. 상하이항, 서비스 외연을 쉰저우까지 확장  
上海港为何将码头“搬”到苏州?

\*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

## ◆ 기타 동향

8. 2020년 상하이항 Sea & Rail 물동량 79% 증가 예상

上海港海铁联运业务今年增长79%

[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2/t20201211\\_1346700.shtml](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2/t20201211_1346700.shtml)

9. Sinotrans, 30억위안에 7개 유럽기업 인수

中国外运30亿收购七家欧洲企业

[http://www.simic.net.cn/news\\_show.php?id=243410](http://www.simic.net.cn/news_show.php?id=243410)

10. 「장강삼각주 스마트해운 발전 보고」 발간

《长三角智能航运发展报告》发布 聚焦智能航运五大领域

[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2/t20201211\\_1346734.shtml](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2/t20201211_1346734.shtml)

11. 장난조선소, 올 한해 8척의 VLGC 교부

中国领先 全球第一 江南造船全年交付8艘超大型液化气船

<https://www.yangtse.com/zncontent/1035041.html>

12. Ningbo저우산항 다푸커우 컨테이너터미널에 국제노선 신규 개통

宁波舟山港大浦口集装箱码头再添国际新航线

[https://dhnews.zjol.com.cn/dinghaijishibao/redianxinwen1/202012/t20201208\\_3321394.shtml](https://dhnews.zjol.com.cn/dinghaijishibao/redianxinwen1/202012/t20201208_3321394.shtml)

13. 2020년 1~11월 텐진항 컨테이너 물동량 1,700만TEU 돌파

天津港集团前11个月集装箱吞吐量突破1700万标准箱

[http://www.tj.gov.cn/sy/tjxw/202012/t20201209\\_4711277.html](http://www.tj.gov.cn/sy/tjxw/202012/t20201209_4711277.html)

14. '하이난성 '14·5' 콜드체인물류 발전계획' 공개 의견 수렴 시작

《海南省“十四五”冷链物流发展规划》公开征求意见

<http://www.hainan.gov.cn/hainan/5309/202012/c6eba84502ca45b7adbe7b35822152d5.shtml>

작성자 :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감수자 :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
([kmishanghai@naver.com](mailto:kmishanghai@naver.com))/+86-21-6090-0395)

## 저장(浙江)자유무역구, 중국계 편의치적선 국제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 시행

- 2020년 12월 저장자유무역시범구(浙江自贸区)에서 처음으로 중국선사의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수출입 환적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이 정식 시행됨
- Ningbo-Haiphong 관리부처에 따르면 12월 2일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Ningbo Wanyang Shipping Company(닝보 원양)의 컨테이너 정기선 ‘신명주(新明州)66’호가 저장성 자싱(嘉兴)항 자푸(乍浦)항구에서 수출입 환적 적컨테이너 10개를 Ningbo Zhoushan항 베이룬(北仑) 제3터미널 2번 선석으로 운송 및 하역작업을 수행함
- 그동안 중국계 기업의 편의치적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, 외국적 선박은 중국내 항만간 해상화물 운송이 금지되는 법규로 인해 많은 화물들이 해외 항만에서 환적됨
- 2013년 국무원은 ‘중국(상하이)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’에서 중자(중국계) 회사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선박을 이용한 중국 연해 항만과 상하이항 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운송 시범사업을 허용함
- 2020년 9월 21일 국무원의 ‘베이징, 후난, 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 및 저장자유무역시범구의 확장구역 방안에 관한 통지’ 발표 이후 Ningbo Wanyang은 교통운수부 및 세관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화물의 연안운송 인가를 받았으며, 11월 9일 총 6척 선박에 대해 교통운수부로부터 저장자유무역구 중자회사 편의치적선 시범사업 자격을 부여받음
-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화주, 해운기업, 항만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
- 화주의 경우 노선 선택권이 보다 다양해지고 해운물류 효율의 제고로 비용이 절감되며, 결과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
- 선사의 경우 보다 융통성 있게 배선을 할 수 있으며, 선박 이용을 제고, 운영비용 및 에너지 절감, 배출 저감, 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이점이 있음
- Ningbo Zhoushan항의 경우 집하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환적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
- 현재 중국 상하이, 광둥, 톈진, 푸젠, 저장, 하이난의 총 6개 자유무역시범구의 대외개방항에서 중자회사의 편의치적선에 대해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화물 연안운송을 허용하고 있음
- 2013년 동 정책 시행 이후 100여척의 선박이 교통운수부에 등록되어 있으며, 최근 몇 년간 해당 수송량이 점점 늘어 2018년 한해에 8.5만TEU의 수송실적을 기록함

(中华航运, 2020. 12. 9.)

[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2/t20201209\\_1346631.shtml](http://info.chineseshipping.com.cn/cninfo/News/202012/t20201209_1346631.shtml)

## 2020년 1~11월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,840만TEU 달성

- 2020년 1~11월 상하이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 대비 0.48% 증가한 1,840여만 TEU를 기록했으며, 올 한해 물동량은 20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
  - 2020년 10월 양산항 3기 및 4기 터미널에서 각각 72만TEU와 45.5만TEU를 처리해 월별 물동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
  - 한편, 11월 18일 양산항 4기 터미널은 24시간 주야 작업으로 2.1만TEU의 처리실적을 기록함
-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력 및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경제발전에 차질을 빚음
  - 양산항 변경검문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산항 입출항 선박은 전년 동월 대비 10.7% 감소한 580척, 출입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13.3% 감소한 약 1.3만명을 기록했으며, 컨테이너 물동량은 109.6만TEU로, 전월 대비 32.4%, 전년 동월 대비 14.22% 감소함
  - 그러나 3월 들어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은 인원과 차량의 부족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전체 양산항의 정상화 생산운영을 지원했으며, 그 결과 3월 한달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물동량의 95.3% 수준인 163만TEU로 빠르게 회복됨
- 올해 양산항은 도로운송의 수상운송 전환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, 수상운송의 병목 해소 등을 통해 양산항 1기 및 2기 터미널의 수수(水水)환적 비중을 73.56%로 증대시킴
  - 양산변경검역소는 수출입 컨테이너 인도 방식 최적화, CFS 및 CY 사용료 감면, 수입화물의 냉장창고 사용료 인하, 체선료 면제 등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항만이용환경 안정화를 도모함
  - 아울러 기업의 운영원가 절감을 위해 전국에서 솔선하여 THC, 항만시설보안료 등의 감면정책을 실시함
  - 이밖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온라인 서류 취급률이 최고 93.7%에 달함

(中国新闻网, 2020. 12. 07.)

<http://www.chinanews.com/cj/2020/12-07/9356157.shtml>

##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, 유조선 시장 진작할 것으로 예상

- 선박중개회사 Gibson에 따르면,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조선 시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지난 6월 원유 수입량이 일일 최대치인 1,170만 배럴을 기록한바 있으며, 올해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도 수요 강세를 나타내는 등 올 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(해상)은 사우디아라비아로, 올해 1~10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하루 평균 152만 배럴을 수입함
  - 이라크와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중국의 2대 및 3대 원유 수입국으로, 중국은 올 한해 이 두 나라로부터 각각 일일 평균 100만배럴 이상 및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함
  - 이밖에 브라질과 앙골라 등 기타 국가들도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로 수혜를 입고 있음
- Gibson은 2021년 수입 쿼터의 증가로 중국 수요가 향후 몇 개월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  - 최근 중국 상무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정유공장과 무역회사가 추가적으로 486만 배럴/일의 원유 수입쿼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0년보다 20% 정도 증가한 것임
- 코로나19가 전체 수요를 파괴시켰지만 중국항 장거리 운송은 유조선 시장에 수요를 증가시킴
  - 이 영향으로 지난주 VLCC 운임이 소폭 상승했으며, 중동에서 중국까지의 28만톤급 운임은 WS2로 상승, 미국 걸프만에서 중국발 27만톤급 운임은 462만 달러로 2만 달러 상승함
  - 희망봉을 거쳐 미국 걸프만으로 가는 27만톤급 운임은 WS15/16 수준, 서아프리카에서 중국발 26만톤급 운임은 WS29.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수에즈막스급의 경우 흑해서 지중해까지 13.25만톤급 운임은 WS52.5로 유지되었으며, 아프리카막스급은 지난주 제이한에서 라발라까지 8만톤급 운임이 WS60에서 마감됨

(中华航运, 2020. 12. 07.)

<https://www.cnss.com.cn/html/hygc/20201202/338807.html>

## COSCO Shipping Ports, 샤먼에 자동화부두 R&D센터 설립

- 2020년 12월 7일 COSCO SHIPPING그룹 산하의 COSCO Shipping Ports사가 신청한 '자동화부두기술 교통운송업 연구개발센터'(샤먼위안하이(厦门远海) 터미널 실험기지)가 교통운수부의 승인을 받아 샤먼에서 현판식을 개최함
  - 동 연구개발센터는 COSCO SHIPPING그룹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인정한 산업연구 플랫폼으로, COSCO SHIPPING그룹이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질 높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
- 동 R&D센터는 중국의 스마트 항만 건설과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자동화 부두 건설 및 개조와 관련된 설계, 건설, 운영, 유지보수 등 분야의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, 중량·중대 장비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 및 응용 등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여 중국의 자동화 터미널 기술, 장비 및 서비스 역량 구축을 가속화할 것임
- COSCO SHIPPING은 자동화부두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 기술과 항만 업무를 깊이 있게 융합해 2016년 중국 최초의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건설해 상용화함
  - 2020년 샤먼위안하이 터미널에서는 또 5G 스마트항만의 전체 상황을 시험적으로 응용하였음.
- 향후 샤먼위안하이터미널 실험기지에서는 자동화 기술 및 핵심 제품의 개발, 자동화터미널 표준 제시, 중국 자동화터미널 기술 솔루션 마련 등을 통해 전 세계 터미널의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

(中国港口集装箱网, 2020. 12. 10)

<http://www.portcontainer.com/newsAction.do?command=viewData&categoryId=8a9287fa300b0b0001300b5864990011&dataId=e563d28475e3330401764a884e98009e>

## 중국 국경통상구 적체로 중~유럽 화물열차 제외한 수출화물 적재 일률 중단

- 최근 중국 철로총국(铁路总局)은 국경 통상구의 화물 적체로 2020년 12월 8일 18:00시부터 13일 18:00시까지 얼론히오터(二连浩特)와 아라산코우(阿拉山口)로 도착하는 모든 수출화물의 적재를 일률 정지시킴
  - 이는 철로총국이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중~유럽 화물열차 외 아라산코우 및 휘얼거스(霍尔果斯) 경유 수출화물의 적재를 일률적으로 정지시킨지 10일 만에 다시 시행한 중단 조치임
- 올해 아라산코우를 통과한 중~유럽 화물열차는 4,500회를 넘었으며, 이는 전년 동기대비 42.83% 늘어난 수치이며, 누적으로는 16,000회를 돌파해 신기록을 경신함
  -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, 중~유럽 화물열차의 운행횟수는 빠르게 늘어났고, 일부 국경통상구는 하반기부터 심각한 적체가 발생하면서 국경통상구에서 많은 열차들이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해짐
- 올해는 보다 많은 도시가 중~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했으며,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일부 해운, 항공 화물 물량이 철도로 몰려 상반기 중~유럽 화물열차 수송능력이 급속하게 증대됨에 따라 수송능력이 국경통상구의 환적능력을 크게 능가함
  - 이에 철로총국은 중~유럽 화물열차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중~유럽 화물열차 운영회사에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며, 다수의 회사들은 또 수송능력의 일부를 감소하기도 함

(物流指闻, 2020. 12. 9.)

<https://www.headscm.com/Fingertip/detail/id/17447.html>

## 「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(해항편)」 발표

- 2020년 12월 4일 중국경제정보사(中国经济信息社)와 교통운수부 수운과학연구원은 항저우(杭州)에서 개최한 ‘강항(强港) 포럼’에서 「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(해항편)」을 공동 발표함
  - 이 보고서는 '혁신, 조화, 녹색, 개방, 공유'라는 항만 고품질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1등급 4개 지표와 2등급 1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해 국내 22개 연안 주요 항만의 고품질 발전 상황을 평가함
-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2개 연안 주요 항만의 종합점수 최고점은 9.07점, 평균 5.74점, 최저 3.87점임
  - 22개 항만 중 상하이항, 닝보 저우산항, 선전항, 칭다오항은 연안항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
  - 보고서는 "국내외 거시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항만업계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'쌍순환(双循环)'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여 국가의 중대 지역 발전전략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"고 밝히고 있음
- 한편, 보고서는 '14.5' 계획 기간 중국 항만의 화물 처리량 증가율이 2%에서 3%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

(中华航运, 2020. 12. 07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Ezq5N7nePnJo8pl2M01pJA>

## 상하이항, 서비스 외연을 쑤저우까지 확장

-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‘장강삼각주 일체화 설명회 및 쑤저우 도시 설명회’에서 상하이항과 쑤저우 타이창(太仓)항은 함께 협력하여 장강삼각주 항만 일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함
- 이에 앞서 지난 10월 15일 SIPG의 ICT(내하컨테이너센터) 프로젝트가 쑤저우에서 착수됨
  - 이 프로젝트의 운영으로 상하이항의 서비스가 쑤저우 바이양만(白洋湾) 연안까지 확장되어 쑤저우 지역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 - ICT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운영되면, 현재 쑤저우~양산항까지 운송시간에 비해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시간을 1~2일 단축할 수 있으며, 표준 컨테이너 1개당 물류원가를 200위안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 - 따라서 쑤저우 소재 제조기업과 수출입 기업은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물류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
  - 컨테이너가 ICT에 인도되면 ICT에서 수로(양산항 직항), 도로, 철로(철도운송↔루차오(芦潮)항↔양산항까지 피더운송) 3가지 환적운송 방식을 선택하여 운송할 수 있음
-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 애널리스트 쉐원칭(谢文卿)은 ICT프로젝트로 쑤저우 및 주변 지역 화주들은 바이양만 세관까지만 화물을 보내면 상하이항에 보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‘공 컨테이너 인수, 적컨테이너 발송’ 과정의 약 90% 운송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 화주들의 업무 처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함
- 또한 ICT프로젝트는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, 간편화된 서류신청, 요금납부, 위치조회 등 서비스 제공할 것임

(中国水运网, 2020. 12. 2)
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75796>